

싹둑싹둑 실컷 잘라요

싹둑! 첫 번째 가위질이 성공한 날로부터 아이들은 무엇이든 자르고 싶어하고 부모님은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가위를 숨기고 싶어하지요. 아이들의 가위질은 나름대로 예술이고 잘려진 조각들은 소중한 작품입니다.

필요한 것은

- 끝 부분이 안전하게 처리된 가위
- 자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
 - 빨대, 실, 스티로폼 접시, 과자상자, 두껍거나 얇은 여러 가지의 종이, 형겅등
- 가위질 상자
 - 우유팩 6개 정도를 각각 높이 10cm 정도로 잘라 서로 붙인 통

놀이를 할 때는

- 자녀의 연령이나 가위질 정도에 따라 자를 수 있는 것들은 적당하게 준비해 줍니다.
- 각각의 재료들을 마음껏 자르도록 합니다.
- 잘라진 조그만 조각들은 종류별로 상자의 각 칸에 담습니다.
- 모아둔 조각들은 다른 미술놀이를 할 때 사용합니다.



기타

- 가위질이 익숙해짐에 따라 더 작은 조각으로 내려보도록 합니다.
- 오리기 어려운 재료도 점점 첨가해 줍니다.
- 가위질을 하고 난 조각들로 소리상자 놀이, 붙이기 놀이등의 확장활동을 해봅니다.
- 놀이 후에는 반드시 스스로 정리하도록 합니다.